토 론 문

〈공자의 말들: 몇 가지 새로운 읽기〉에 대한 토론*

이수정, 함영대**

이수정:

인사 - 잘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30수년) 학회활동을 하면서 이런 토론자 역할이 얼마나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일인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럼에도 발표문을 아주 꼼꼼히 읽으시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져주셔서 그 성의와 실력이 여실히 전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나이든 퇴계가 젊은 고봉에게 첫 편지를 받았을 때 이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조차 듭니다. 그들처럼 이 우연한 만남이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영대:

재인사 - 이수정 교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자상하고 또 솔직하셔서 후학들에게 내용과 태도에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학술대회의 좋은

* 2023년 11월 11일 개최된 한국경학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발표문 「공자의 말들: 몇 가지 새로운 읽기」에 대하여 발표자(이수정)와 토론자(함영대)의 학술토론을 수록한 것으로, 학술대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토론에 더하여 대회 이후에 이루어진 논의도 반영하였음을 밝힘.

** 이수정: 창원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
함영대: 경상국립대 한문학과 부교수

토론으로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논제는 더욱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공부의 방법으로 좋은 시도라 생각되어 간략한 답변의 재 답변을 올립니다.

함영대:

이수정 교수님의 공자와 『논어』에 대한 탐색은 우리가 잘 아는 H.G. 크릴 교수의 『공자, 인간과 신화』만큼이나 공자와 논어에 대한 성찰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공자와 『논어』의 본의를 알기 위한 지적 탐험과 그 결과물로서의 깨우침이 느껴집니다. 다만 공자를 '성현'으로 이해하고자 한 것은 여전히 그 관점이 냉정한 관찰대상으로서가 아닌 흠모 내지는 위인으로서 보고자 한 것이라는 느낌은 없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편으로 동양 문화권에서 공자가 지닌 위상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는 용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논어』 해석의 문제는 충분히 公論을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석의 다양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구절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견을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교수님의 지적 여정을 따라가며 삼가 토론을 청합니다.

이수정:

인물과 언어를 포함해 어떤 대상에 대한 태도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공자가 말한 "지지자...호지자...낙지자..."도 그 일례입니다. 예컨대 사과에 대해 우리는 냉정한 관찰대상으로 삼아 그 성분을 분석하는 태도를 취할 수도 있고, 그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읊을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들은 각각 하나의 세계고 선택입니다. 내가 공자를 성현/위인으로서 흠모하고자 한 것은 말하자면 그런 선택을 한 것

입니다. 말하자면 공자의 언어들을 맛있게 먹어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70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이 세상에 공자 같은 그런 사람-언어가 얼마나 적은가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 토담이 허물어진 퇴계의 도산서원에서 놀기도 하며 지낸 성장배경이 알게 모르게 작용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공자의 철학은 '냉정한 관찰대상'으로 삼는 그런 지적 접근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어떤 것이라고 나는 믿어마지 않습니다.

함영대:

공자라는 인간에 대한 검토에서 우리는 연구대상을 항상 냉정한 관찰대상으로만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선생님의 성찰은 후학도 깊이 동감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깊은 성찰과 존경의 대상으로 위인을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위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의 흠이 되는가라는 질문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연은 공자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았지만 공자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하기보다는 깊은 존경의 마음으로 스승에 대해 찬탄했습니다. 안연의 마음을 두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전의 본의를 탐색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학자의 숙명은 감정을 내리고 조금은 더 엄격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함영대 질문 ①: '各於其黨'의 '黨'의 해석에 대해

〔원문〕 子曰, 人之過也, 各於其黨. 觀過, 斯知仁矣. (『論語』「里仁」 7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잘못은 부류에 따라 제각각이니, 그 사람의 과실을 보면 인(仁)한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사람의 잘못이란 각자 자기(말)의 정당함에 기댄다(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잘못을 보는 것, 이것이 곧 어짊을 아는 것이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과연 "2,500년간 공자의 이 말을 이렇게 읽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자부하실 정도로 그 해석에 청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黨'의 字義는 일반적으로는 '黨與'의 그것으로 이 구절은 통상 사람들은 자기의 부류 선입견에 휩쓸려 정당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판단을 하는 所以然을 안다면 그것으로 인해 仁을 알게 될 것이라는 가르침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이 '黨'의 자의를 '當'또는 '讜'으로 이해하셨습니다. 곧 자기 관점, 자기 정당화에 의해(선생님께서는 독선으로 이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자기 관점, 자기 정당화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자신의 관점과 정당화를 기반으로 논의를 전개하게 되는데 그 원초가 문제가 있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은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나 우려합니다. 黨與의 문제와 자기 관점의 문제는 그 논의 층차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인 선입견으로 인한 사리분별의 미흡 문제는 공통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자기 판단력의 기초를 부정해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이는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수정 답변 ①:

좋은 지적이고 당연한 지적입니다. 예상했던 이의제기라 오히려 고맙기도 합니다. 이런 지적은 당연히 맞습니다. 저라고 그걸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동의합니다. 단, 공자가 말한 당黨이 내가 느낀 대로 당讜이 맞다면, 우리는 '인지과'라는 공자의 지적이 함교수님의 지적처럼 '자기 판단력의 기초'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어' 즉 각자가/모두가 자기 말만 옳다고 여기고 그것을 기반/준거로 삼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남을/타자를 고려하지 않고 따라서 그 남에 대한 사랑 즉 인이 멀어지게 된다는 그 부분을 즉 문제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관점/자기정당화/자기판단력의 기초는 당연히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 '내 말이 절대로 옳다'라는 각자의 고집/독선 입니다. 따라서 저도 저의 이 말(해석)이 '절대로 옳다'고 고집을 부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해석의 옳고 그름보다도 토론자와 발표자의 상호 우의가(인仁이) 백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함영대:

경전해석에서 결과론적인 유사성이 그 문맥에서 해당 자의(字義)의 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에서 돌출하는 개성적인 접근을 시도할 경우, 해당 해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글자의 경전적 용례나 공자의 언어습관이 제시된다면 더욱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함영대 질문 ②: '仁'에 대한 공자의 설명에 대하여

공자는 問仁에 대해 樊遲에게는 '愛人'으로도 쉽게 설명해 주었지만 仲弓에게는 '己所不欲, 勿施於人'으로 좀 더 그 의미를 심층화했으며, 顔淵에게는 '克己復禮'라고 일러주고, 그 구체적인 조목을 묻는 안연에게 禮가 아니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는 매우 엄격한 仁의 실천법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 제자들의 수준에 맞는 답변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공자에게서 仁은 하나의 성격이 아니었지만 그 최고의 수준은 거의 '公法'의 수준까지 염두에 두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구절에서의 仁은 사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보편적인 공통의 가치에 가까워야 논리적 정합성이 이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편견에 대한 논의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취지의 의견입니다.

이수정 답변 ②:

역시 당연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단, 사랑과 '공법'의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를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소위 공법을 포함하고 그것조차도 초월하는 인간관계의 원리 중의 원리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애인'이든 '기소불욕물시어인'이든 '극기복례위인'이든 기본적인/공통된 것은 '기己'와 '인人'의 대비이고 그 '인'을 위한 '기'의 통제이니 이런 게 공법이 아니면 뭐가 공법이겠습니까. 공자가 말한 사랑(愛人)은 당연히 이성 간의 연애가 아니라 자기(己, 소위 에고)에 대한 통제 그리고 타자(人)에 대한 근본적인 인정과 존중 그리고 고려와 배려이니 굳이 사랑과 공법을 구별하여 층위를 둘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함영대:

네, 이 부분은 좀 더 입장을 세워 토론할 필요를 느낍니다. 포괄적인 사랑과 공법은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적인 사랑은 좀 더 느슨한 형태의 권면하는 말이고, 엄격한 공법의 진행은 하면 안된다는 단호한 금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 공자의 仁에 대한 설명은 좀 더 층차를 구분하여 말씀주시는 것이 좀 더 공자의 본지를 전달하는 데 좀 더 적확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함영대 질문 ③: '年四十而見惡焉'의 해석에 대해

〔원문〕 子曰, 年四十而見惡焉, 其終也已. (『論語』「陽貨」 26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사십이 되어도 미움을 받는다면 거기서 끝난 것이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나이 사십이 되어서도 나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다 끝난 것이다."

이 구절은 통상 '나이 사십이 되어도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면'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교수님은 이를 두고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쁘게 보인다'로 읽어야 한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근거는 다양한 정황의 다른 사례나 '죄악은 나이와 상관 없기 때문에' '사십이 특별히 그 기준이 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쁜'이라는 뜻이다'는 것입니다. 다소 미진한 설명으로 이해됩니다.

그런데 애당초 공자의 이 말은 '四十'이라는 인간의 나이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자는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자리에서 四十과 관련하여 '不惑'을 이야기했고, (공자를 배우고 싶어 한 맹자가 四十에 不動心을 말한 것에 비추어 공자의 四十도 어느 정도는 부동심의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後生可畏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후생을 지목한 바 있는데 그는 바로 '四十五十而無聞'인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에게 四十은 사회적 발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위상을 어느 정도 구축해야 할 마흔의 나이에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각성을 촉구하는 말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해석이 주는 모호함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식대상의 문제인지 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

니다. 만약 악을 행하다는 의미로 공자가 말하고자 했다면 '行惡'이라고 하면 될 일이지 굳이 '미움을 받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 '見惡'이라고 쓸 필요도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수정 답변 ③:

통상적 해석의 변경에 대해 '다소 미진한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사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만일 들어보시고 그 취지에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한마디 설명이라도 이미 충분할 수 있습니다. '40'이라는 나이와 관련해 '무문'을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종야이'를 '그 인생이 어렵지 않겠느냐'로 해석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책에서 따로 논의한 바가 있으니 혹 기회가 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해석이 주는 모호함, 특히 인식대상의 문제인지 인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도 지적해 주셨는데, 날카로운 좋은 지적입니다. 나쁘게 보인다는 것은 당연히 양자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호한 것은 불가피합니다. 인식대상이 객관적으로 진짜 나쁜지 어떤지 인식하는 사람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객관적으로 진짜 옳은지 아닌지 원천적으로 양자 모두 모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향인개호지 하여 … 개오지 하여…'라는 저 유명한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공자 본인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어떤 사람은 나쁘다 하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 막연하지만) 그저 '건전한 이성'혹은 소위 '공통감각'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게 '나쁘다'고 보이는 게 '견악'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 공자는 복합적인 의미에서 '다 끝났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견악'이 드러난 '행악'이 아닌 것은 물론 말할 것

도 없습니다.

함영대: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見惡'이 정녕 "나쁘게 보인다"라고 해석되기 위해서는 경전이나 일반 문장에서 이렇게 해석된 사례가 있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見惡의 경우"악을 보다, 미움을 받다."는 해석으로서의 사례 외에 '나쁘게 보인다'는 사례로 해석된 전례가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수정:

같은 한문이라도 선진시대의 언어와 송대 이후의 언어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자의 언어는 그 자신의 사상적 '문맥'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영대 질문 ④: '辭達而已矣'에 대한 해석과 경전해석의 방법론

〔원문〕 子曰, 辭達而已矣. (『論語』「衛靈公」 40章)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은 뜻이 통하게 할 뿐이다."
〔이수정 교수님 견해〕 "핑계가 달통했을 뿐이구나."

이 구절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주자가 정리한 '辭, 取達意而止, 不以富麗爲工'이 정곡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판단은 주자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전대의 '凡事莫過於實, 辭達則足矣, 不煩文豔之辭.'의 의견을 계승한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구절을 두고 辭가 '使臣專

對之辭'라는 보충주를 달아 놓기도 했습니다. 대개 경학적 전통은 기존의 해석을 참고하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적층적인 지적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은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시면서도 선택에 있어 얼마간은 임의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명대의 철학자 탁오 이지도 자신의 경학저작 『四書評』에서 매우 직관적인 의견을 제출한 바 있어 그것도 하나의 경학적 전통에 반영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말을 두고 '핑계가 달통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다소 돌출적인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이어서 그 해석의 저변을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한 말씀을 더 청해 듣고자 합니다.

이수정 답변 ④:

주자나 전대의 의견이나 다산이나 기존의 해석을 참고하는 전통은 저도 당연히 압니다. 다만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별스럽게 튀려는 의도는 절대로 없습니다. 관련 책에서 다른 대부분의 장구는 기존의 해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해당 해석에 대해 함교수님은 '다소 돌출적인 측면이 아주 없지는 않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러실 것입니다. 이런 파격적-도전적인 새 해석에 대해서는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해석한 배경을 나름 설명하였으니 그 배경(특히 공자의 이 말이 일반적인 언어론이 아니라는 점)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자의 관심사와 공자의 관심사 사이의 괴리를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달이이의'를 '핑계가 달통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주자학적 관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해석학적 관점에서 즉 현실을 바탕으로 읽은 고전해석(아, 그때 그게 지금 이거로구나, 혹은 아, 지금 이게 그때 그거로구나,

하는 것, 가다머의 이른바 지평융합Horizontverschmelzung)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대:

학문적 성숙이 이루어진 중후한 학자의 개성적인 의견의 제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응당 새로운 지평의 확대를 위해 개성적인 의견은 제시되어야 하고 이는 경학의 지평을 넓히는 중요한 지적 작업이 될 것입니다. 단지 굳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이 구절이 너무도 유명하고, 또 후래에 많은 해석이 적층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의견을 덧붙였다면 종래의 견해와 변별되면서도 어느 정도는 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주장이 좀 더 효과적인 의견제시가 아닐까 하여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주석자 개인의 성찰에 의한 의견의 제시 역시 경전 주석의 하나의 전통으로 존재한다는 점은 응당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영대 질문 ⑤: '道聽而塗說'에 대하여

> 〔원문〕 子曰, 道聽而塗說, 德之棄也. (『論語』「陽貨」 14章)
> 〔해석〕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하면 덕(德)을 버리는 것이다."
> 〔이수정 교수님 견해〕 "도를 듣고서 덧칠해 말하는 것은 덕을 버리는 짓이다."

저는 고전학의 탐구자들은 다양한 전공을 지적 탐색의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며 그것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부한 사고의 경로를 제공하여 고전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탐색의 방법론과 결론에 이르는 과정상의 논리 전개는 어느 정도 타당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의하신 '道聽塗說'은 이미 하나의 숙어가 된 것으로 여기서 道와 塗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모두 '길(일반적인 의미의 도로)'입니다. 『논어집해』에서 "聞之于道路, 則傳而說之."라고 이해한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이를 '道'와 '塗'에 대한 字義에서 新義를 개척한 것은 저로서는 다소 과도하게 생각됩니다. 충분히 자기화하지 못하고 듣는 대로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道'의 '塗說'에 대한 경계로 전환되는 것은 전래의 의미를 대체로 수긍하는 저로서는 전혀 생경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도'를 덧칠의 의미로 이해하려면 최소한의 그러한 어휘의 쓰임이 제시된 용례를 제시하는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정 답변 ⑤:

'道聽塗說'은 이미 하나의 숙어가 된 것으로 여기서 道와 塗에 대한 이해는 일반적으로 모두 '길(일반적인 의미의 도로)'입니다. 『논어집해』에서 "聞之于道路, 則傳而說之."라고 이해한 것이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새 해석이 생경하게 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숙어화된 의미에 대해 의문을 느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글자도 애당초 그게 아니거니와 그 문장 자체가 너무나 부자연스럽습니다. 심각한 오독이라고 봅니다. 애당초 누군가에 의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라고 봅니다. 왜 칠 도塗가 길 도途인가.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게, 이게 과연 문장으로서 성립되는 것인가. 이게 과연 공자식 어법인가. 일단은 글자 그 자체로부터 의미를 읽어야 합니다. 저는 마치 저 자신이 공자의 환생이라는 그런 관점에서(이른바 '해석학적 빙의') 문제 그

자체를 곱씹어 봅니다. 저도 명색이 철학박사 학위를 받고 철학교수를 지냈으니 영 바보는 아닐진대, 부디 저를 좀 납득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영대:

오랜 전통을 지닌 숙어라 할지라도 그 근본으로 돌아가 새로운 자의를 제출하여 그 의미를 일신시키는 것은 '鷄鳴狗盜'나 '尾生之信'의 의미가 새롭게 해석된 사례에서 보듯 고전의 해석에서는 그다지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道聽塗說'과 같은 숙어는 너무도 익숙한 것이고, 대체로 그 의미에 동의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구절에 비해 논란은 거의 없었던 곳입니다. 이 구절을 다시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면 그 근거의 제시가 좀 더 면밀하게 논증되어야 일반적인 독자들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함영대:

이수정 교수님의 새로운 해석에 동감하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새로운 의견은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음에도 저 역시 이제는 다소 보수적인 관점을 지닌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새롭게 경전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수정 교수님의 발표에 다시금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정:

'보수적인 관점'이든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든 공통된 것은 공자에 대한 관심 내지 애정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자체가 공자가 그만한 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사소한 어구의 해석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과 말이고 그의 삶일 것입니다. 그 방향 즉 제

대로 된 인간과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드는 일일 것입니다. 정正 혹은 역易이라는 글자로 그것은 압축됩니다. 2500년 아득한 세월이 흘렀음에도 공자가 아직 여전히 살아 있어 이 자리에 임재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서양철학을 전공한 문외한임에도 이렇게 고명한 학회에서 영광스러운 발표 기회를 주신 학회 선생님들과 날카로운 질문으로 좋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해 주신 함영대 교수님, 그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영대:

이렇게 정성스러운 답변으로 학술대회의 품격을 높여주신 이수정 교수님의 학자적 면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학회가 좀 더 넓은 학문분과의 고명하신 선생님들과 교류해야 할 필요성을 선생님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